

추석 민생안정 종합대책 추진

장수군, 유관기관과 협조 종합상황실 운영

장수군은 추석 연휴기간 군민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교통, 생활, 의료, 재난 등의 분야에서 '2019 추석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10일 장수군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12일~15일 4일간 과장·팀장을 상황실장으로 장수경찰서와 무진장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종합상황실, 재난관리대책반, 물가안정대책반, 생활민원대책반, 교통대책반, 의료대책반 등 6개 반으로 편성된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종합상황실은 연휴기간 재난·재해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각종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군민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재난관리대책반은 재난·재해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물가안정대책반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해 가격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의 지도·점검 활동을 펼친다.

생활민원대책반은 각종 민원의 신속한 처리, 교통대책반은 연휴기간 귀성객의 교통 편의를 위한 터미널 상황 파악 관리, 재난 안전사고 등에 대한 신속한 상황과파 등의 활동을 펼친다.

의료대책반은 연휴기간 진료대책을 세우고 당번 약국 지정 및 운영, 24시간 응급실 운영, 보건지소 및 보건진

료소 일일별 지정 운영해 군민과 귀성객들의 응급 상황에 대비한다.

추석 연휴 요일별 운영 병·의료원 및 약국은 12일 산서보건지소, 동화보건진료소, 동아가정의학과, 중앙의원, 대성약국, 태평약국, 보건약국, 유약국, 장계백제약국, 터미널약국, 13일 계북보건지소, 오봉보건진료소, 태평양약국, 유약국, 14일 번암보건지소, 미하보건진료소, 대성보건진료소, 대성약국, 태평양약국, 유약국, 15일 계남보건지소, 계월보건진료소, 대성약국, 유약국 등이다.

조금현 행정지원과장은 "추석 연휴기간 6개 분야의 종합대책 추진으로 군민과 귀성객들이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은 오는 17일까지 5일 간 무주반딧불청소년수련원에서 신규 공무원 62명을 대상으로 직무·소양교육을 실시한다.

우리가 내일의 주인공!

무주, 신규임용 공무원 교육

무주군은 오는 17일까지 5일 간 무주반딧불청소년수련원(설천면 청량리 소재)에서 신규 공무원 62명을 대상으로 직무·소양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생활의 적응을 돕고 고객민족을 주도하는 공직자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각 분야 전문 강사들과 선배 공직자들이 △공직관과 △군정시책(공직가치, 청렴, 공약사업, 군정방향 등), △직무(예산·지출실무, 기록물·보안, 보고서작성 등), △소양(직장예절, 성인지·4대 폭력 등), △행정(입국·수료 및 설문 등) 4개 분야 18과목(40시간)에 대한 교육을 맡아 진행한다.

무주군청 자치행정과 박선옥 인사 팀장은 "신규임용 공무원들의 업무역량을 키우는 목적도 있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리가 될 거

라 확신한다"라며 "많은 부분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배 공직자들이 직접 교육을 진행하는 만큼 조직 분위기와 역량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신규임용 공무원들은 지난 9일과 10일 공직윤리와 보조금 관리, 언론대응 및 보도자료 작성, 민원응대 기본스킬, 예산 및 지출계열실무, 공무원노조의 역할과 이해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첫날 특강을 통해 '소통'을 강조한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발전을 위해 저출산과 교육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또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무주군은 마음경영 소통법과 4차 산업을 준비하는 미래경영전략 등에 대해서도 11일부터 17일까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추석준비는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추진 상품권 이용 캠페인도 진행

무주군은 추석연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0일(안성장날)과 11일(무주장날) 장보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는 (사)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무주지역본부, 소비자개발센터 무주군지부, 시장상인회 등이 주관하는 것으로, 10일에는 안성시장(덕유산정터)에서 황인홍 무주군수와 유승열 무주군의회 의장, 황의탁 도의원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시장상인회 등 주민들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상인들은 "오랜만에 생기가 넘친다"라며 "장날마다 오늘만 같으면 좋겠다"라고 입을 모았다.

11일에는 무주시장(반딧불정터)에서도 진행되며 장보기와 함께 무주사랑상품권 구입·활용과 전통시장 이



무주군은 추석연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0일과 11일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용에 관한 홍보, 그리고 물가안정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황인홍 군수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 같이 애용하고 다 같이 알려야 한다"라며 "우리지역

경제를 살릴 동력으로 무주사랑상품권과 더불어 전통시장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태풍 피해농가 일손돕기 나서

진안군은 지난 9일 역대급 강풍을 동반한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신속한 일손 돕기에 나섰다.

현재까지 피해상황을 보면 벼 도복 피해 등 75농가/23.8ha, 비닐하우스 반과 3개소/0.3ha, 과수 낙과피해 3농가/0.1ha로 집계되었다.

군은 공무원 100명, 군부대 50명, 자

원봉사자 50명 등 총 200여명의 인력을 우선 투입해 벼 도복 피해를 입은 5농가/3ha에 투입돼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추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농가가 발생 시 신속히 인력을 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벼, 과수농가에 대해서는 먼저 농협손해보험에서 농작물 피해현황이

확인이 되어야 농작물 재해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번 태풍 피해농가는 "태풍피해로 신속한 수확작업과 인력이 필요했는데 덕분에 큰 도움이 됐다"며 고마움을 전달했다.

김덕규 농업정책과장은 "태풍 피해농가의 농작물 조기 복구에 지속적인 지원활동과 함께 신속한 농작물 피해 조사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추석 명절 임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진안군은 추석을 앞두고 밥·대추 등 임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진안사무소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섰다.

합동단속반은 재수용품 판매 및 구매가 많은 전통시장과 관내 중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품목은 재수용품인 밤, 대추, 고사리, 더덕 등 주요 임산물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시 현행법상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된다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 신고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ps.go.kr)으로 신고 가능하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은 지난 9일 추석을 맞아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고추시장, 버스터미널 등에서 방역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된 캠페인은 명절을 앞두고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질병 유입 방지를 위한 대 군민 홍보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번 캠페인에 군·읍면 방역 관련 공무원, 축산 농가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방역홍보 리플릿 800여장을 주민과 귀성객들에게 배부했다.

읍·면 주요 도로 및 다중 집합 장소 12개소에 현수막을 내걸고 축산농가 방문자제, 해외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 등 홍보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김덕규 농업정책과장은 "가축방역에 대한 전 군민의 관심과 참여가 축산농가를 지키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9월 10일과 17일은 전국 양돈농장 일제정소·소독의 날로 관내 양돈농가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

지역 매아리

장수군, 태풍피해 농가 일손 돕기

장수군이 추석연휴 전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일손 돕기 추진 계획을 세우고 전 직원 일손 돕기에 나섰다.

10일 장수군에 따르면 지난 9~11일까지 긴급 복구가 필요한 산서면, 장수읍, 계북면 장계면 천천면 등 관내 7개 읍·면 태풍 피해 농가 11곳을 대상으로 낙과 줍기와 벼 세우기, 농업시설물 복구 등 전 직원이 피해 일손 돕기를 진행하고 있다.

인력은 읍·면 지원 희망 요청에 따라 부서별 1/2씩 피해 농가와 협의에 따라 작업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투입된다.

작업 시간은 농가가 요구한 경우를 제외한 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해 피해를 최소화 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도록 복귀 의지를 도모한다.

이밖에도 군은 농기계의 경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피해 신청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방침에 따라 추석연휴 전까지 신고 접수 1일 이내 현장조사를 마치고 평가가 종료된 농가에 대해서는 그 다음날까지 재해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과수 이외의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피해를 입은 경우 통상적으로 최종 수확량을 확인해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신속한 손해평가를 실시해 농가 희망할 경우 추정보험금의 50%수준을 선지급 할 예정이다.

장영수 군수는 "태풍 피해 농가에 대해 긴급 일손 돕기를 펼치고 복구 장비를 지원하는 등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 추석맞이 가축방역 캠페인

진안군은 지난 9일 추석을 맞아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고추시장, 버스터미널 등에서 방역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된 캠페인은 명절을 앞두고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질병 유입 방지를 위한 대 군민 홍보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번 캠페인에 군·읍면 방역 관련 공무원, 축산 농가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방역홍보 리플릿 800여장을 주민과 귀성객들에게 배부했다.

읍·면 주요 도로 및 다중 집합 장소 12개소에 현수막을 내걸고 축산농가 방문자제, 해외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 등 홍보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김덕규 농업정책과장은 "가축방역에 대한 전 군민의 관심과 참여가 축산농가를 지키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9월 10일과 17일은 전국 양돈농장 일제정소·소독의 날로 관내 양돈농가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